

▶ **당양군수 재선거...민주당 경선 7~8일**

국정운영 경험 vs 지역 토박이... 정책 공약도 '치열'

이재중, 교육·농촌·교통·관광 분야별 비전 제시 최화삼, 농업 혁신·맞춤형 복지·대통합 등 약속 신인 가점 20%·탈당 감소 25%...중대 변수 될 듯

더불어민주당 당양군수 후보 결선을 앞두고 이재중·최화삼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40대의 이 후보는 국정운영 경험을 토대로 탈당 경력 없이 '민주당 충성과' 이력을 강조하고 있고, 70대의 최 후보는 3번의 군수직 도전 경력을 앞세우며 '2전 3기 토박이론'으로 대승하고 있다. 7~8일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는 신인 가산점과 탈당 페널티, 경선 탈락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양군수 후보 경선에서 살아남은 이재중·최화삼 예비후보는 이번주 7~8일 예상되는 결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각각 차별성을 내세우며 정책공약을 잇따라 내고 있다.

먼저 이재중 예비후보의 경우 강점으로 내세우

고 있는 것은 국정운영 경험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선 후보 광주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으로 국정운영을 경험한 만큼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잘 사는 부자 농촌, 군수가 직접 된다"는 가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통해 담양의 농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인데, 군수가 직접 판로를 개척과 홍보에 나서고, 지자체 차원 품질 보증 판매 시스템을 갖춘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정치적 유희를 따지지 않고 원칙과 신념을 지켜온 후보다"며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군민과 함께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중 최화삼

최화삼 예비후보의 강점은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4·5대 담양군의원,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지역 토박이라는 점이다.

최 후보는 70년간 담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오랜 지역 정치와 의정활동 경험으로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른바 '토박이론'으로 차별성을 강조했다.

금융기관 근무 경력과 농업 분야 종사 경험 등을 살려 군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 후보는 군민이 행복한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 군민 대통합과 참여 등을 군정 운영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어려운 정세와 경기 침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며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 농민이 잘사는 농업혁

신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담양 청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들과 함께 '행복한 군민, 살맛 나는 담양 건설'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나란히 현금 지원성 공약을 제시했으나,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 후보는 민주당 경선 결선 투표가 결정된 직후인 지난 3일 "가구당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지원금 지급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해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는 최 후보와 차별점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추경 예산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정부 부처 등 중앙정치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어려운 담양 재정에 부담만 야기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적 지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담양군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결선 투표에서는 후보별 가·감산과 탈락 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인 이 후보는 득표수의 20% 가산점을 받고, 최 후보는 2022년 탈당 경력으로 당구당 25% 감산을 적용받는다. 최 후보는 1차 경선 직전까지도 '인재영입 케이스여서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25% 감산은 피하지 못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주말 결선은 경선 탈락자 3명과 전직 군수들의 지지표가 어느 후보에게 쏠리느냐와 가감산 틀이 당락에 중요 변수"라며 "정치 신인의 파죽지세나, 2전3기 토박이나, 예단 하긴 쉽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에 공로패

한전공대 설립·기반 마련 기여 공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설립에 기여한 제주대 명예교수인 송재호 국회세종시사연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 (2018년 3월~2020년 1월) '한전공대 발전부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에너지공대 설립 추진 일정 구체화, 부지 확보,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절저한 사전 준비로 실질적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설립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한전공대 설립 비전 선포 및 광주·전

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도록 지원했다. 지원위원회는 대정부·대국민 홍보,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한 광주-전남-전북지역 상생협력, 대학 간 공동연구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송재호 위원장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성장할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에너지공대가 글로벌 톱10 공과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설립 당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애정을 갖고 함께 했던 에너지공대가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에너지공대가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별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고 힘껏 돕겠다"고 화답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안도걸 "쿼드러플 경기 추락...수혈 추정 시급"

생산·소비·투자·수출 감소...경제 급하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광주 동구남구을·사진)은 5일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향도를 벗어났다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안 의원은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이며,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라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흐름으로, 고착화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경기침체로 한 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들이 폐업 후 재기에 실패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정부의 생계·의료 급여 지급으로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 활력 유지는 물론 정부 재정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주력 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AI 기술·산업의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신속 공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아울러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 지원하기 위해 필수 SOC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방이 바로 추경"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계속된 추경 편성 지체는 거시경제 안정도모라는 '정부책임 위기'이자 예산 편성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민주당 전남도당-경남도당 자매결연 상생협약 민주당 전남도당, 경남도당은 5일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영호권 화합과 내린세력 총석을 통한 제4기 민중정권을 창출할 것을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과 경남 진주시, 산청협안거장합천, 거제시 지역위원장과 선출직 의원,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에 국회도서관 유치"...추진위 발족

민주당, 국회 차원 지원 약속... "대통령 공약 반영돼야"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발기인대회가 5일 광주시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사회로 진행된 발기인 대회는 추진위원과 발기인 1000여 명이 참석해 국회도서관 광주관 설립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한준호 최고위원, 정성호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도 축사

를 통해 광주의 문화·지식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기인 결의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광주시민 및 각계각층의 협력 강화, 정치권·행정기관·언론·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미래형 도서관 구축을 통한 광주의 지식 혁신 허브 조성 등을 다짐했다.

특히 국회도서관 광주관이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지식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는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중심지로 국회도서관 광주관이 유치되면 호남권의 정보문화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발기인대회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추진위원장 인사말, 경과 보고, 주요 인사들의 축사, 발기 결의문 낭독, 유치 기원 퍼포먼스,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최초 제안자인 정준호 의원은 "발기인 대회를 통해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추진위원회는 향후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도서관 광주관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지방정부, 나라 발전 축으로 자리 잡을 것"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신정훈·사진)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생정책 보고회'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정책,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장흥군의회 조례 등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부는 달라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치"라며 "우리당이 30년 동안 많은 지방정부 운영해왔지만, 변화와 혁신이 없었다면 국민께서 왜 우리에게 표를 주시겠는가. 민주당 지방정부가 새로운 비전과 실현으로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민생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지방정부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